

지역 소식통

2020 식중독 예방관리
고창군,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20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은 정부합동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 식중독 발생 저감률, 우수사례 발굴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고창군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업소를 종점관리하고 식중독 안전검사와 예보지수 알림이 문자메시 등을 실시했다. 특히 집단급식소 19개소 대해 세균측정기(ATP)를 대여해 종사자와 관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위생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0년 미세먼지 저감
부안군,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이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전라북도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300만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부안군은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통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였고, 업무 연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평가는 전라북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틀인 다양한 노력에 대한 평가로, 부안군은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생활성 연소 저감 이행 등 미세먼지 저감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생활성 연소 저감 이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주요사업 집행, 정부 주요 시책 추진 등 5개 분야 16개 평가항목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종합경기장 확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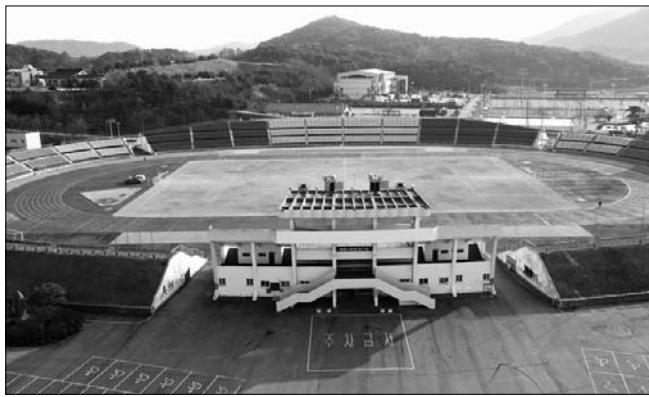
총 사업비 204억원 들여 도심형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2022년까지 리모델링... 스포츠 산업육성 전진기지 기대

정읍시 종합경기장이 도심형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된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04억원을 들여 종합경기장을 전

면 리모델링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2월까지 종합경기장 본부석과 관람석 (민내4,400㎡)을 전면 철거하고 문화와 체육, 여가시설이 어우러진 도심형 스포츠·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본부석 자리에는



정읍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204억원을 들여 종합경기장을 전면 리모델링 한다.

국비 78억원과 시비 103억원 등 총 176억원을 투입해 건축 면적 6,558㎡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체육트레이닝 센터가 조성된다.

체육트레이닝 센터에는 수영장과 작은 도서관, 다목적 강당, 국민체력 인증센터 등 공용시설이 설치되며, 2021년 3월에 착공해 2022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또 종합경기장 외과 법면과 관람석 철거에 15억원, 제로에너지(태양광 등) 시설 조성과 작은 도서관 조성에 13억원을 들여 막혀있던 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침이다.

더불어 종합경기장이 맞춤형 체육시설로 개선되어 전국 규모 대회가 열리는 스포츠 산업 육성의 중심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해 스포츠 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치매인식센터는 2020년 치매 관리사업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평가를 달성했다.

정읍시, 치매 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치매 업무 추진실적 '호평'

치매 가족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특화사업으로는 경증 치매 환자 텁텁 정원 기구기 프로그램과 치매 가족을 위한 허브테라피, 치매 안심마을 미니정원 기구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특히, 다양한 향기 식물자원을 활용한 감각자극(후각·시각·미각·촉각) 프로그램을 적용해 경증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 향상과 우울감 감소, 치매 가족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줬다.

또한, 치매 인식마을(농소동 목련아파트 2단지)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 내 미니정원을 조성해 마을 주민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코로나 취약시설 선제적 검사

고위험시설 39개소 종사자 등

정읍시는 김제 가리오요양원 대규모 집단 발생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요양병원과 요인원 등 고위험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확산 중인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고, 고위험시설·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는 지역 내 요양병원 5개소와 정신병원 1개소, 요인원(생활) 17개소, 요인원(주간) 16개소 등 총 39개소의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인요양시설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의 우려가 커질 수 있

다. 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들의 경우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구분하기 어렵고 표현도 쉽지 않아 감염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위험도 높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에 민첩을 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수검사 대상 요양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검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증상 감염이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문화재청장상'

2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 화제

고창군의 문화재 안내판이 2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 청이 전국 지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고창군은 올해 고창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279호)을 비롯해 지정문화재 30개소의 안내판을 정비했다.

새롭게 정비된 안내판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학생 등 자문단을 구성하고 꾸준하게 안내판 문안을 갱신해 왔으며, '해설 위주에서 이해·김동' 중심으로 크게 바꿨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변산면, 시가지 일대 꽃양배추 식재

매력부안 문화 군민운동 전개

부안 변산면은 격포항 등 주요 관광지 및 시가지 일대에 꽃양배추 400주를 식재하여 코로나 19로 활기를 잃고 침체된 분위기에게 활기를 더했다.

꽃양배추는 겨울철 가로화단에 주로 식재되는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며 밝은 색을 지니고 있어 아기자기한 풍경을 조성하는데 일맞은 품종이다.

이번 꽃양배추 식재는 2023 세계 챔버리를 성공개최하기 위해 추진중인 매력부안 문화 군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변산면은 찾을 불법 쓰레기 무단 투기로 봄살을 앓고 있는 변산면 내 관광지 일대 화단에 꽃양배추를 식재하여 청결하고 아름다운 거리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선 변산면장은 "면민들과 관광객들이 가로화단에 심은 꽃양배추를 보면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며, 친절하고 친절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부인을 만드는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에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여 매력적인 변산면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는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객들이 가로화단에 심은 꽃양배추를 보면서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며, 친절하고 친절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부인을 만드는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에 많은 군민들이 동참하여 매력적인 변산면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는 뜻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